한국 안세영이 10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 태국의 포른파위 초추웡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 안세영 '우승 포효'

코리아오픈 배드민턴…화순군청 정나은, 김혜정과 짝 이뤄 여자복식 2연패

한국 여자단식 7년만에 금메달
강민혁-서승재 남자복식 우승

한국 배드민턴이 3년 만에 열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17년 만에 대회 여자 단·복식 동반 우승을 이룬 한국은 남자 복식 우승컵마저 들어 올리며 5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이 코리아오픈에서 3개 종목 이상에서 우승한 것은 2016년 대회에서 남자 복식 이용대-유연성, 여자 복식 정경은-신승찬, 혼합 복식 고성현-김하나가 우승한 후 6년 만이다.

먼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는 여자 배드민턴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었다.

안세영은 10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태국의 포른파위 초추웡을 2-0(21-17 21-18)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지난 2019년 대회에서 32강에 머물렀던 안세영은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서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한국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안세영의 우승으로 한국은 7년 만에 코리아오픈 여자 단식 우승컵을 가져왔다.

이어 열린 여자 복식 결승전에선 정나은(화순군청)-김혜정(삼성생명)이 친자매 사이인 태국의 베냐파 아임사드-눈타카른 아임사드를 2-0(21-16 21-12)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대회서 우승한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과 준우승을 차지한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이 대회 직전에 터진 코로나19 문제로 대회 출전을 포기하면서 여자 복식 대회 2연패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나은-김혜정은 보기 좋게 예상을 뒤엎었다.

한국 배드민턴 여자 복식 정나은(오른쪽)-김혜정이 10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2 코리아오픈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메달을 수상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전영오픈에서 세계 랭킹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을 꺾고 3위에 올랐던 정나은-김혜정은 아임사드 자매를 상대로 한 수 위 경기력을 보였다.

여자 단·복식 동반 우승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이 하나 더 추가됐다.

강민혁(삼성생명)-서승재(국군체육부대)는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파자르 알피안-무하마드 라이언 아르디안토에 2-1(19-21 21-15 21-18)로 승리했다.

지난해 11월 팀을 결성한 강민혁-서승재는 3번째 출전한 국제대회서 우승하며 남자 복식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3세트에선 그야말로 혈투가 벌어졌다.

두 팀 선수들은 15-14까지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며 이번 대회 최고의 승부를 펼쳤다.

15-14에서 강한 스매시 공격으로 점수 차를 2점을 벌인 강민혁-서승재는 이후 상대 코트 구석을 노리는 공격으로 연속 점수를 내 점수 차를 3점으로 늘렸다.

상대 수비 범실로 20-16 매치 포인트를 만든 강민혁-서승재는 이후 2실점을 했지만, 상대의 마지막 공격이 아웃 라인을 넘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열린 혼합 복식 결승에선 고성현-엄혜원(이상 김천시청)이 말레이시아의 탄 키안 멩-라이 페이 징에 0-2(15-21 18-21)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펜싱팀, 실업연맹전 단체·개인전 우승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24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펜싱(에페)팀이 최근 해남 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개인전 1위를 석권했다.

전남도청은 결승전에서 광주서구청을 44-40으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박소형은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김리나(경기도청)을 15-5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일축하고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그는 8강전에서 이지희(충북도청)에 14-13로 승리한 뒤 준결승전에서 김향은(전남도청)을 15-8로 따돌렸다. 김향은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펜싱팀. 김용율(왼쪽부터) 감독, 김향은, 유진실, 박소형, 유단우, 손정민, 최세빈, 박다은, 김시은, 김지현, 전수인, 김수민 코치. 〈전남도체육회 제공〉

김용율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선수들이 땀흘린 결과"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다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민정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1500m 우승

4년 만에 종합우승 도전
서휘민 3위·심석희 5위
남녀 계주 1위로 결승 진출

한국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종합 우승 타이틀에 성큼 다가갔다.

최민정은 10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3초594의 기록으로 캐나다 킴 부탱(2분24초201)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우승했다.

함께 출전한 서휘민(고려대)은 2분24초45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심석희(서울시청)는 2분25초458로 5위에 그쳤다.

여자 500m에서는 한 명도 결승 파이널 A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최민정과 서휘민은 파이널 B에 출전해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심석희는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메달 레이스 첫날 금메달 1개로 파이널 포인트 39점을 받은 최민정은 킴 부탱(은메달 2개·42점)에 이어 종합 순위 2위 자리에 올랐다.

최민정은 11일 여자 1000m, 여자 3000m 슈퍼 파이널에 출전해 종합우승에 도전한다.

최민정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한 건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남자부는 이날 전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남자 1500m 결승에 진출한 이준서(한국체대)는 5위로 결승선을 끊었고, 곽윤기(고양시청)와 김동욱(스포츠토토)은 결승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했다.

이준서는 남자 500m 결승에서도 4위로 밀리면서 아쉽게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남녀 계주는 가볍게 결승에 진출했다.

최민정, 김아랑(고양시청), 박지윤(의정부시청), 서휘민이 뛴 여자 계주 대표팀은 3000m 여자 계주 준결승에서 4분10초464의 기록으로 캐나다를 꺾고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준서, 곽윤기, 박인욱(대전체육회), 한승수(스포츠토토)가 나선 남자 계주 대표팀 역시 5000m 남자 계주 준결승에서 7분 3초 722로 1위를 차지했다. 계주 결승은 11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정찬성, 4R TKO 패…두번째 챔프 도전 불발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무대인 UFC에서 생애 두번째 타이틀 도전에 나선 '코리안 좀비' 정찬성(35)이 무결점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34·호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찬성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비스타 베테랑스 메모리얼 아레나에서 열린 UFC 273 메인이벤트에서 볼카노프스키에게 4라운드 시작 45초 만에 레프리 스톱 TKO로 패했다.

정찬성은 2013년 8월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전에 나섰지만 뜻하지 않은 어깨 부상으로 당시 챔피언 조제 알도(브라질)에게 4라운드 TKO패를 당한 바 있다.

페더급 랭킹 4위인 정찬성은 9년 만에 타이틀 도전에 다시 나섰으나 볼카노프스키는 챔피언 벨트를 허락하지 않았다.

1~2차 방어전에서 맥스 홀레웨이, 브라이언 오르테가를 차례로 누른 볼카노프스키는 정찬성을 제물로 3차 방어에 성공했다.

볼카노프스키의 격투기 전적은 24승 1패(UFC 전적 11승)가 됐다. 정찬성은 17승 7패(UFC 전적 7승 4패)를 기록했다.

경기 후 정찬성은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자신 있었고, 몸 상태도 좋았고, 준비됐었다"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시합에 지면 언제든 그렇지만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내가 더는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찬성은 "이것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씁쓸하게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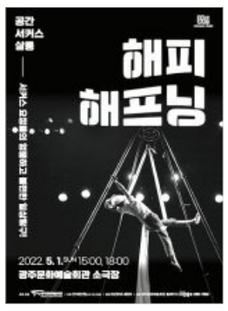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비우스
2관	모비우스
3관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4관	스텔라
5관	앰뷸런스
6관	앰뷸런스
9관	수퍼 소닉 2, 스텔라
7관 씨네커플	뜨거운 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8관 씨네커플	불도저에 탄 소녀, 더 배트맨, 극장판 주술회전 0, 배니싱: 미제사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해피 해프닝
일시 : 2022.05.01.(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